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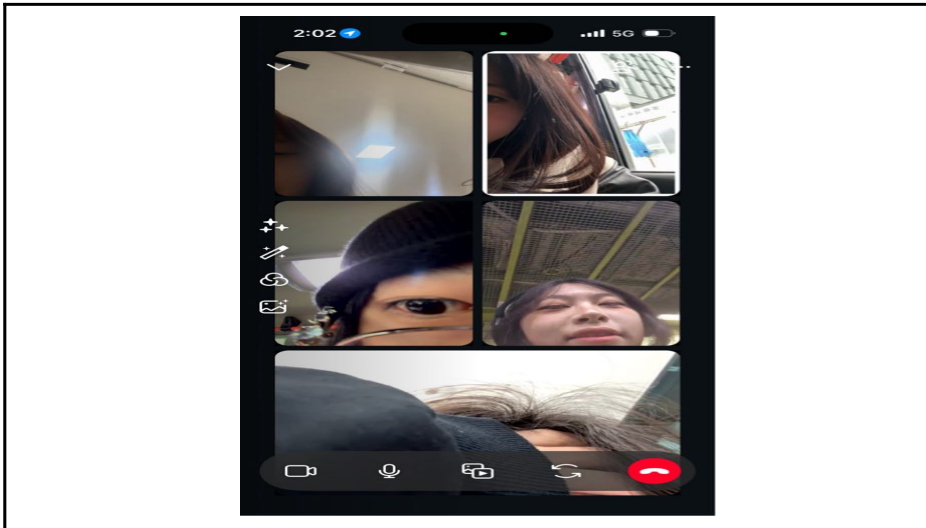



1주차	일시	3 월 26 일 17 : 00 IB104 상상베이스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신효린 2651015	○
		김민건 2651021	○
		한예서 265100	○
		김서연 2651096	○
김예담 2651014	○		
진도	도서명: 예술이란 무엇인가	진도페이지: 7 p. ~ 76 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김민건,한예서,신효린,김예담,김서연]</p> <p>이번 독서동아리에서는 ‘비싼 작품이 좋은 예술인가’와 ‘감동 없는 작품도 예술인가’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나눴다. 효린은 현대 미술 시장에서 추상주의가 본래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고, 일부 작품들은 작가의 유명세나 시장 영향으로 작품성과 상관없이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에서 비싼 작품이 곧 좋은 예술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예술은 결국 인간의 내면과 철학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p> <p>또한 예쁜 요소는 많지만 감동이 없는 작품도 예술일 수는 있지만, 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가격이 매겨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는 예술에는 반드시 스토리와 의미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작품의 가치는 그 스토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p> <p>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왔다. 서연은 예술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매우 주관적인 영역이며 예술의 정의를 내려버리면 수학 수식과 같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에 예술은 정답이 없다 생각했다.</p> <p>민건은 가격 단지 시장의 평가일 뿐이며 감동이 없더라도 예술이 아닐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예술은 사람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 생각함</p> <p>예서는 예술의 가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재료의 단가에 따라 작품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p> <p>한편 예담은 예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노동과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실제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공감하기도 했다.</p> <p>이번 활동을 통해 예술은 단순히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 과정, 그리고 개인의 경험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예술을 바라보는 기준에는 정답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p>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패션 독서클럽

	일시	4 월 3 일 15 : 00 IB106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신효린 2651015	○
		김민건 2651021	○
		한예서 265100	○
		김서연 2651096	○
김예담 2651014	○		
진도	도서명: 예술이란 무엇인가	진도페이지: 77 p. ~ 147 p.	
2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김서연, 김예담, 김민건, 이시원교수님, 한예서, 신효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술의 기준은 '진실한 감정 전달'인가, '미적 완성도'인가?, 2. '좋은 예술'은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에 대해 토론을 했다. <p>김서연: 현대 사회인들의 대부분은 무교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을 볼 때 '종교'를 생각하지 않고 보지만, 18세기 사람들은 종교적 시각에서 예술을 바라본다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예술은 미적 완성도가 중요하며 반드시 도덕적일 필요는 없지만, 좋은 예술은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신효린: 미적 완성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쁘기만 하고 아무런 스토리가 없는 작품은 좋은 예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예술이 도덕적이면 좋겠지만, 도덕적이지 않아도 예술은 예술이라고 생각한다.</p> <p>김예담: 좋은 예술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예술이 인간을 도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면 좋은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김민건: p.115를 읽고 '예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감정이 없는 예술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예술의 기준은 모호한 것 같으며, 비도덕적인 예술도 좋은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김예서: 예술은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좋은 예술은 사람들에게 감동이나 생각할 거리를 주는 작품이라고 보았다.</p> <p>교수님: 시대에 따라 도덕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톨스토이는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좋은 예술은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책이 오래전에 쓰였음에도 현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상류층만 이해할 수 있었던 예술을 오늘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다.</p>	

3주차	일시	4 월 8 일 14 : 00 장소: zoom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신효린 2651015	○
		김민건 2651021	○
		한예서 265100	○
		김서연 2651096	○
	김예담 2651014	○	
진도	도서명: 예술이란 무엇인가	진도페이지: 148 p. ~ 213 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한예서,신효린,김예담,김서연,김민건]</p> <p>-시간이 지나도 감동을 주는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의 차이는 무엇일까</p> <p>김예담: 시간이 지나도 감동을 주는 작품은 인간의 본질과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은 당시의 유행이나 욕망을 반영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늘날의 상류계급 사람들에 의해 진정한 예술로 대접받고 있다.”라는 문장이 기억에 남았다. 예술의 본질보다 사회적 지위와 겉모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실을 비판하는 부분이라고 느꼈다.</p> <p>김서연: 시간이 지나도 감동을 주는 작품은 사랑, 희망, 슬픔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진정성 있게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고안된 기법들이 차용, 모방, 충격, 흥미끌기 등이다.”라는 문장이 인상 깊었는데, 예술이 감정 전달보다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p> <p>한예서: 오래 사랑받는 작품은 인간의 감정과 관계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으며,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고 생각한다. “예술이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인간적 활동이다.”라는 문장이 기억에 남았으며, 예술의 본질은 아름다움보다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공감했다.</p> <p>김민건: 시간이 지나도 감동을 주는 작품은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나온 “예술은 감정의 감염이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작품이 오래도록 기억된다고 생각했다.</p> <p>신효린: 시간이 지나도 사랑받는 작품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의미를 전달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술은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한다.”라는 내용이 기억에 남았으며, 세대가 달라도 사람들 사이의 공감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작품이 오랫동안 감동을 준다고 생각했다.</p>		

4주차	일시	5월 15일 14 : 30 장소명 캠퍼스 내 카페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신효린 2651015	O
		김예담 2651014	O
		김민건 2651021	X
		한예서 265100	X
		김서연 2651096	X
진도	도서명: 예술이란 무엇인가	진도페이지: 214 p. ~ 302 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김예담,신효린,이시원 교수님]</p> <p>톨스토이는 예술에서 '진실한 감정 전달'을 중요하게 보는데,현대 대중문화(아이돌 음악, SNS 콘텐츠 릴스,숏츠 등)도 과연 진정한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p> <p>이시원 교수님: 톨스토이는 예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진실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현대 대중문화도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감정을 전달한다면 예술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p> <p>김예담: 아이돌 음악이나 숏폼 콘텐츠도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조회수나 유행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는 예술이라기보다 소비를 위한 콘텐츠에 가깝다고 보았다.</p> <p>신효린: 현대 대중문화 역시 예술이 될 수 있지만, 톨스토이의 기준으로 본다면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보다 제작자의 진심과 메시지가 담긴 작품이 더 예술에 가깝다고 이야기했다.</p>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신효린 2651015	예술의 가치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의미와 감정 전달에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며 예술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2	김예담 2651014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예술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좋은 예술의 기준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3	김민건 2651021	예술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토론을 통해 예술의 본질과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4	한에서 265100	여러 주제에 대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예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예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뜻깊은 활동이었다.
	5	김서연 2651096	이번 독서클럽을 통해 예술에는 정답이 없고 사람마다 바라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예술에 대해 더 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